안녕하십니까 기술적 분석 세션을 진행할 5기 박세웅입니다. (대충 그 날 썰 풀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 청중 관심도/이해도 알아보고)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의를 알아보고, 트레이딩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개념은 다음과 같구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의 변동을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배웠던 기본적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기본적 분석을 생각해봅시다. 기본적 분석은 주식의 fundamental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니 영업이익이 이만큼 찍히고, BM이 유망하니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드는 분석 방법이었어요.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요. 차트를 보니까 52주 전고점이 깨지면서 상승 의지를 확인했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앞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셔도 뒤에서 천천히 설명해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가치를 분석하는데, 시장에서 가치를 알아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long term으로 보는 경향이 있구요. 반대로 단기적일수록 기업 가치보다는 그때그때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니까, 기술적 분석은 short term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길어질수록 펀더멘털 분석은 효율적이고, 기술적 분석은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럼 각 분석 방법은 어떤 자산군에 활용하는 게 유용할까요? 기본적 분석이 fundamental을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fundamental 분석이 용이한지 아닌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식은 회사를 분석하면 되고, 채권은 국가나 회사를 분석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입지랑 상권 등을 분석하면 되구요. 반대로 원자재나 암호화폐, 환율은 fundamental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 자체로 현금흐름이 창출되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산들은 기술적 분석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둘 간에 차이를 느끼셨나요?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듯이,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관점 역시 다른데요. 기술적 분석을 base로 하는 투자 방식을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둔 방식입니다. 이미지로 떠올리면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요. 모니터가 잔뜩 있고 사람들이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숫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구요.

트레이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면 롱/숏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ong은 매수를, Short은 공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투자 행위는 Long이죠? 반대로 공매도는 나한테 없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행위에요. 그러면 Long은 가격이 올라야 이득이고, 반대로 Short은 가격이 떨어져야 이득일겁니다. 빌려서 팔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큰일이니까요. 왜 매수/매도를 Long/Short이라고 부를까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옛날 뉴욕에 가죽을 파는 가죽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장부상 재고가 많으면 long, 재고가 없으면 short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재고가 장부에 long하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겠죠? 반대로 재고가 부족하면, 즉 short하면 일단 주문을 받아놓고 얼른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을 만들어야 했을거에요. 그래서 long/short이 매수/매도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이 가죽들 중에 소가죽은 재고가 만성적으로 long이었고, 곰가죽은 반대로 재고가 항상 short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long이 강한, 매수세가 강한 시장을 bullish market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반대로 short이 강한, 매도세가 강한 시장을 bearish marke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경제 신문이나 칼럼 읽을 때 이런 단어들 종종 등장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스탑 사례를 보면 이 공매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5월 3일부로 다시 허가되었습니다.) 대체로 자금력을 많이 가진 기관들이 대량 공매도를 치고, 시장에 공급이 많이 풀려 가격이 싸진 매물을 받아서 되갚아 수익을 실현하는 행태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게임스탑 사례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매도세를 꺾고 가격을 폭발적으로 올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영상 자료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시청하고) 이후에 미국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는 점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이 롱/숏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각 포지션은 수익이 발생할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수익이 10만원이고 손실이 9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손익은 1만원을 기대할 수 있고요. 포지션을 여러 번 취해서 손익을 쌓아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포지션에서 수익과 손실은 확률적으로 발생합니다.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본질적으로 모든 투자 행위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원을 넣어서 1억을 벌 수 있다고 해도, 99.9%확률로 돈을 잃는다면 별로 좋은 투자가 못되는 거에요. 반대로 100만원을 넣어서 150만원을 버는데, 돈을 잃을 확률이 10%밖에 안되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위험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하고, Sharpe Ratio나 Treynor Ratio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잃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매수를 잡았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의 최저치는 0원이에요.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그럼 반대로 매도를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무한하죠? 그래서 매도를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트레이딩에서는 이 손실 한도를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손절을 지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을 지속하려면 돈을 다 잃으면 안 되는데, 손절을 못하면 결국 돈을 다 잃고 더 이상 트레이딩을 못할테니까요.

이어서 자금 관리인데요. 트레이딩은 시행을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시행별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켈리 베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행마다 돈을 거는 행위를 우리는 베팅이라고 합니다. 베팅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액 베팅은 첫 시행에 전액을 베팅하는 겁니다. 몰빵치는 거죠. 정액 베팅은 시행마다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거고, 정률 베팅은 시행마다 총 자산의 일정 비율만큼 베팅하는 겁니다. 정률 베팅은 항상 돈을 ‘일정 비율’만큼 걸기 때문에, 계속 돈을 걸어도 파산은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켈리 베팅은 바로 이 정률 베팅인데요. 미국의 수학자였던 존 켈리 주니어가 고안한 베팅 방법입니다. 클로드 섀넌이라는 유명한 정보 이론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영감을 받아서 “정보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게 되죠. 논문에 따르면, 각 시행에서 정보우위/배당률 만큼의 베팅을 하는 것이 복리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수식은 이렇구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승률이 10%로 동일한 10필의 말로 경마를 한다고 해봅시다. 만원을 걸어서 1등을 맞추면 10만원을 얻고, 틀리면 모두 잃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내부 정보를 듣고 1등 말을 맞출 확률이 20%로 증가했다고 치면, 매번 얼마의 자금을 걸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수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매 시행마다 자금의 1/9를 걸었을 때 수익이 최대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를 룰렛 게임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집중해주세요. 처음 상황부터 생각해봅시다. 게임의 승률은 10%이고, 만 원을 걸면 10만원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은 10배가 됩니다. 기댓값은 1만원, 즉 원금 대비 1배가 되겠네요. 이어서 내부 정보를 들은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승률이 20%로 올랐어요. 그러면 기댓값은 2만원, 원금 대비 2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금 관리를 하지 않은, 즉 전액 베팅인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켈리 베팅에 따라서 베팅을 한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액 베팅을 하지 않고, 자금의 1/9씩 베팅하면요. 돈을 잃어도 8/9는 남아있겠죠? 승리했으면 1/9의 10배인 10/9를 얻고 남겨둔 8/9를 더해서 자산은 2배가 될거에요. 그리고 각 경우를 다 더해서 나눠보면 기댓값은 원금의 1.11배가 나오네요. 전액 베팅에 비해 기댓값이 오히려 줄었네요? 이건 손해보는 게임일까요?

룰렛을 딱 한 번 돌리고 말거라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룰렛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연속 시행의 기댓값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 은행가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죠? 왜 복리로 계산될까요? 돈이 재투자되기 때문인데요. 100만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이자율이 10%라고 해볼게요. 이걸 단리로 계산하면 100 -> 110 -> 120 … 이렇게 늘겠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100 -> 110 -> 121 -> 133.1 …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전 상태에 연속해서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연속 시행은 곱셈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복리 수익률은 단순히 수치를 더해서 나누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곱셈을 한 뒤 제곱근을 취하는 기하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룰렛으로 설명해놓은 자료를 부록에 실었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연속적인 사건은 곱셈의 영역이고, 그 말인 즉슨 룰렛에 한 번이라도 0이 꽂히면 자금에 0이 곱해지면서 기대 복리 수익은 0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액 베팅을 한 앞의 케이스를 보면요. 아무리 시행 한 번의 기댓값이 2배라고 하더라도, 0에 꽂힐 확률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에 비해 자금을 남겨놓고 켈리 베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한 번의 기댓값은 작아져도 0에 꽂힐 확률이 없어지게 되죠. 기대 복리 수익률은 0에서 1.045로 증가하게 됩니다. 1.045를 계속해서 곱해나가면, 결국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죠?

켈리 베팅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켈리 베팅에서 복리 수익률이 최대화되게 됩니다. 한편, 켈리 베팅은 수익률이 제일 좋지만 여전히 위험이 큽니다. 앞서도 80%의 확률로 자금이 10%씩 없어지고 있었죠? 원금 손실이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켈리 베팅의 절반만큼을 베팅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면, 수익을 조금 반납하는 대신에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최적 베팅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구요.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투자할 때 몰빵치지 말자는 겁니다. 몰빵을 치게 되면 걸려있는 금액이 커지고, 손실이 곱해질 때마다 잃는 돈도 그만큼 커지겠죠? 사전에 미리 자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포지션 진입을 하셔야 해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리밸런싱은 보유 자산 비중을 매 시점마다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비슷한 개념이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과 손실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손익 1만원짜리 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손익 규모가 더욱 커질 겁니다. 어? 손익 규모가 커지면 돈을 많이 버니까, 무조건 레버리지는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벌 수 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크게 잃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해외선물 사례를 통해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유로 선물을 가지고 알아볼게요. 보시면 위탁증거금이 $220입니다. 위탁증거금은 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인데요. 한화로 27만원 정도를 내면 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유료 선물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레버리지를 끼고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의 가치를 증거금으로 나누면, 몇 배의 레버리지를 끼고 거래하는 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예시를 가져와보면, 매수 시점의 환율이 1.4117일 때 계약가치는 1.4117 \* 12,500 = 17646.25가 됩니다. 위탁 증거금이 220이므로 나눠주면 17646.25/220 = 약 80.21배의 레버리지를 끼고 거래한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도 해볼까요? 먼저 틱은 가격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주식은 한 번에 100원씩 오르고, 어떤 주식은 한 번에 1000원씩 오르고 그러죠? 선물 거래에서는 이 단위를 틱이라고 표현합니다. 틱 단위가 $0.0001이고, 틱 가치가 $1.25니까 10계약 기준으로 2틱 움직이면 한화 기준으로 약 2만 8천원을 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해외선물 특성상 1분안에 2틱 움직이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데요. 이제 잃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박스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요. 5분동안 폭락해서 13틱이 날아갔죠? 이걸 계산해보면 162.5달러가 나오고, 계산해보면 한화 기준으로 약 20만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5분만에 20만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니, 굉장히 위험하죠? 레버리지를 낄 때는 그래서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구요. 손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레이딩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려워도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내용들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다음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는데요. 먼저 가격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격에 모든 게 반영되었으니까, 가격 움직임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대적인 기술적 분석이 처음 시작된 20세기 초반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보의 전달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던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있던 사람들은 정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정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기술적 분석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물들에 관성이 법칙이 적용되듯,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오르는 가격은 더 오르고 싶어하구요, 내려가는 가격은 더 내리고 싶어합니다. 추세에 관련해서 <듀얼 모멘텀>이나, <터틀의 법칙>과 같은 책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전제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결국 과거의 기록을 참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가격도 과거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지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기술적 분석의 가정들이었구요. 차트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는 시간 변화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해놓은 표입니다.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차트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차트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라인 차트와 캔들 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시간 단위로 기록해놓은 가격이 있다고 해봅시다. 기준 단위가 하루라고 가정하면, 각 날짜별로 00시에 점을 찍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준 시간의 종가를 연결하여 그린 차트를 라인 차트라고 합니다.

라인 차트는 한 눈에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준 내에서 그 사이의 가격 데이터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캔들 차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캔들 차트는 18세기 일본의 쌀 선물 시장에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캔들인데요. 이 캔들은 기준 시간 동안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캔들을 더 들여다보면요. 캔들은 몸통과 꼬리, 그리고 몸통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의 아래쪽이 시가, 위쪽이 종가고요. 꼬리의 위쪽이 고가, 꼬리의 아래쪽이 저가입니다. 참고로 시가는 시작 가격, 종가는 종료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통의 색상은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종가면 양봉, 시가>종가면 음봉을 나타냅니다. 색상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편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빨간 봉은 여기 시가에서 시작해서 꼬리 사이에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여기 종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여드린 색상에 맞춰서 차트를 작성해봤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캔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적 분석의 전제에서, 가격에는 추세가 존재한다고 했죠?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적 분석들이 성립하는 것인데요. 추세에 대한 논의는 이 다우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우 이론은 다우-존스 지수를 창시한 찰스 다우가 고안한 이론입니다. 현대 기술적 분석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추세의 형성과 시장의 6국면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주가가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는 매매 타이밍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인기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국면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격적으로 폭락한 때를 공포 국면으로, 폭락 후 침체가 되었다가 동학개미운동 등 사람들의 학습효과로 인한 매집 국면, 언택트 붐과 2분기 선방으로 인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승 국면, 3분기 실적 발표와 단일 종목으로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KOSPI 3000 돌파하며 주식 시장 전체가 과열되었던 12월 이후를 과열 국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분산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실적 악재가 터지거나 기대감이 사그라들며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는 공포 국면이나, DRAM 가격 상승 및 코로나 상황 개선을 염두에 둔 매집 국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분석이구요. 요지는 추세를 이해하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이 3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추세의 형성입니다. 방향성으로 구분하면요.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와,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얼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세를 정의해보면요.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가격이 변화하는 상태이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가격이 변화하는 상태입니다. 단기 관점으로 보느냐, 장기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고점과 저점을 각기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주황 점을 저점으로, 파란 점을 고점으로 보면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형태로 우상향을 그리는 것이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우하향을 그리면 하락 추세이죠. 그래프로 확인해보면요.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죠?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저점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이에 고점/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고점/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 자체에 집중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차트를 수평으로 분석하여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가 얼마나 가속이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나 MACD, CCI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수평으로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구나~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사진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인데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추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구요.

이러한 추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까 추세는 고점/저점을 갱신하면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점/저점 갱신이 실패하면서 추세는 종료됩니다. 종료된 추세 이후에는 기존 방향에서 반전되기도 하고, 추세를 보이지 않고 횡보하기도 합니다. 고점/저점 갱신에 실패하면서 하락 전환되었죠? 고점/저점을 꾸준히 낮추다가 고점이 높아졌고, 이후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락하던 추세가 횡보하고, 이후 하락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종료되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지와 저항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부딪히면서 형성됩니다.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모든 참여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매수/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과거의 차트에서 찾게 되고, 과거에도 사람들이 매수/매도했던 자리를 기준으로 삼아 매수/매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추세선, 전고점과 전저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좀 더 심화해서, 지지와 저항을 경매 상황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요. 그걸 보면서 개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가격은 2등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유념하면서 봐주세요. (영상 시청 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게임 아이템 경매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이걸 주식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본질적으로 공개 경매 시장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에 가격표가 붙어있나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잖아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내놓으면, 매수자들은 주식을 놓고 경쟁 입찰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 가격은 2등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의 행태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주식이 3000원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들인다면, 어 이 주식 지금 싼 건가? 라고 생각해 봄 직 하니깐요. 그렇게 4000원, 5000원 올라갈수록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어느 시점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질 거에요.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구요. 가격이 하락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매물을 받아주는 매수자들이 나타날거고, 이 매수자들이 많아지면서 매도세를 이긴다면 다시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에요. 눈치채셨나요? 가격의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 때 참여자들의 반응은 거래량으로 나타날 겁니다. 차트에서 확인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주춤하고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까지 논의를 전개해봤습니다. 조금 복잡해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추세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추세 전략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역추세 전략은 추세가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우게 됩니다. 역추세보다는 추세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추세는 지속되지 않으면 손절하면 되지만, 역추세는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해야하고, 그러다가 더 크게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전략별로 이론적인 매수 타이밍을 보면요. 추세를 타는 추세 매매는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추세가 진행되다 되돌림을 주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역추세는 가격이 평균에서 과도하게 멀어졌을 경우 되돌림을 기대하고 매수하게 됩니다. 전자는 추세를 추종하고, 후자는 평균 회귀를 노린다고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 매매는 매수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되돌림을 줄 때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추세 매매는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졌을 경우, 이동평균선에 다시 가까워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세를 활용한 시장 국면 파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세 3국면부터 약세 3국면까지 한 사이클을 설명하겠습니다. 강세의 1국면은 매집입니다. 이때는 전체 경제나 시장여건이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구요. 전문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매도합니다. 강세 2국면은 상승 국면입니다. 경제여건이나 기업 실적의 개선 여지가 보일 때구요. 개인투자자들도 서서히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전문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고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술적 분석이 가장 용이한 단계로 봅니다. 강세 3국면은 과열 국면입니다. 실제로 경제여건이나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를 보고 새로운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며, 전문투자자들은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열되었던 시장은 전문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며 분산 국면에 접어듭니다.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강한 매수세를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 및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공포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 때부터 개인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사 줄 사람이 없으니 거래량이 급감하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급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전문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주가는 여전히 하락하되, 그 정도가 감소합니다. 침체 이후 점차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지속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인데요. 차트도 이론에 잘 맞고, 설명도 잘 되어있으니 한 번 더 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 분석했었죠? 본인의 관심 종목을 선정해서 강세 3국면 – 약세 3국면을 직접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검사받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구요. 이론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기 보다는, 이런 국면에 있구나~하고 감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추세는 아무래도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면서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드디어 추세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추세 파악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만의 추세를 파악하는 관점을 꼭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조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지표는 가격의 움직임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활용하여 만든 함수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세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숫자로 표현이 되므로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캔들을 포함해서 과거 기준 N개 캔들 동안의 가격을 평균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기간 이동평균선은 20개의 캔들을 20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이동평균선의 활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위치, 각도, 그리고 배열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위치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과거 N개 캔들을 평균낸 값이라고 헀었죠? 그러면 현재 가격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면, 현재 상승 추세라고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녹색 선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죠? 다음은 이동평균선의 각도입니다. 이거는 직전의 이평과 현재의 이평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직전의 이평보다 현재의 이평이 더 높다면,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라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색이 20일 이동평균이고 초록색이 60일 이동평균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오르내림과 가격의 오르내림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동평균의 기간이 더 짧을수록 현재 가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평 추세 예시를 들면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단기간일수록 현재 가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보다 더 높다면 상승 추세로, 반대라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이평이 상승하는 장기 이평을 뚫고 상승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다음, 정배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은 단기간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위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단기간 이동평균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배열되는 현상인데요. 하락하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다음, 역배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말고도 다양한 보조지표가 존재합니다. 보조지표는 분류도 다양하고 그 개수도 무수하게 많은데요. 보조지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활용 목표에 따라 분류하여 여러 보조지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추세 정의입니다. 추세 구간에서만 매매하기 위해 이 지표를 활용합니다. Range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N구간동안 가장 높은 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뺀 지표가 Range이고, 이 Range를 직전 기간까지의 Range와 비교한 값을 Dif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ifference가 0이라면, 비추세 구간이라고 정의하게 되는것인데요. 직접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Range는 딱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10개 구간 Range라고 했을 때, 뒤에 3개의 캔들에서는 Difference가 0입니다. 앞에서 10개 캔들로 Range가 형성이 되었고, 뒤에 3개에서는 이 Range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3개는 박스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즉 비추세 구간이고, 여기서는 매매하면 안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을 보고 있을 때 그 지점의 비추세 여부를 판별한다는 느낌으로 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저기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 추세인 것 같지만, 지표에 따르면 비추세 구간이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되돌림 지점 찾기입니다. 추세 매매의 진입 구간 중 하나가 되돌림 지점이었죠? 그 때 활용하면 좋고요. 되돌림 지표라서 역추세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RSI는 현재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됩니다. 70 이상을 과매수 구간으로, 30 미만을 과매도 구간으로 봐서 각각 매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주의할 점은 과매수/과매도를 활용한 역추세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30 밑으로 떨어져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확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되돌리는 폭도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역추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CCI는 현재의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격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수식을 좀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CCI는 100 이상일 때 과매수, -100 이하일 때 과매도로 보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한편, 되돌림이랑은 별개로 0선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까전에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관계 봤었죠? 그걸 수치화하면 CCI = 0 기준 매수/매도가 됩니다. 파란 구간이 과매도, 빨간 구간이 과매수인데요. RSI랑 비슷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ACD는 단기 지수이동평균에서 장기 지수이동평균을 뺀 값입니다. 장단기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데요. MACD와 시그널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지표로, MACD와 시그널이 0보다 크면 상승 추세, MACD와 시그널이 0보다 작으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CD와 시그널을 뺀 값을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오실레이터가 최고점/최저점을 찍고 작아지는 영역이 바로 되돌림 지점입니다. 보시면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추세가 확실할수록 신뢰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상황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변동시키는 지표입니다. N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평균낸 지표로, 각 기간별로 변동성인 TR은 다음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을 채택합니다. ATR을 활용해서 켈트너 채널이나 볼래틸러티 스탑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 ATR의 배수를 씌워놓은 채널입니다. ATR이 시장 상황에 맞춰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단을 상향 돌파할 시 매수-상단 하향 돌파할 시 청산, 하단을 하향 돌파할 시 매도-하단 상향 돌파 시 청산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Volatility Stop은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요. 점의 위치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 지점부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Volatility Stop은 상승 추세일 경우, 추세의 max값을 기준으로 ATR의 배수만큼을 빼서 점을 찍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때는 추세의 min값을 기준으로 ATR의 배수만큼을 더해서 점을 찍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은 이 Volatility Stop을 찍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전환되게 됩니다. 점점 내려오다가 찍고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매수/매도를 하는 방법이 Volatility Stop입니다.

드디어 보조지표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으면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건,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략은 기본적으로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손절 조건이나 익절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겠구요. 또한 추세를 정의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을 세웠다면 반드시 과거 데이터에 넣어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에서 검증한 전략이 미래에도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백테스팅하면 여러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들은 승률, 손익비, MDD입니다. 승률은 내가 몇 % 확률로 수익을 봤는지, 손익비는 잃은 액수 대비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MDD는 최악의 경우 전체 자산의 얼마만큼을 잃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전략을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구요. 승률, 손익비, MDD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백테스팅은 직접 차트에 그어가면서 손으로 해봐도 되지만, 시간이 무척이나 많이 걸립니다. 다행히도 코딩을 하면 이러한 백테스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다음 세션에서 배우실 TradingView의 파인스크립트로 백테스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딩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으니, 컨셉을 세우고 거기에 최대한 다양한 인풋을 집어넣어서 최적의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전략 검증까지 모든 내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투자를 하는게 나으실 것 같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을 가던, 오늘 배운 기술적 분석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큰 관점에서 추세 국면을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유망한 종목을 선정했는데, 국면이 과열 국면이면 다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매물을 막 던지고 있는 국면이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거에요. 한편으로는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도 있을거구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도 종목 검색을 할 수가 있을거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부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세에 대한 관점은 확실하게 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것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확립해 나가셔야 해요. 최소한 보조지표를 사용할 땐 수식은 이해하고 활용하셔야 하구요. 매매 기법은 단순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뒤에 레퍼런스 달아놨으니까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